

#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이황진\*

|| 차례 ||

- I. 서론
- II. 남구만의 네 차례 유배와 유배시
- III. 결론

## 【       】

본고는 약천 남구만의 유배와 유배시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남구만은 숙종 때에 총 4번의 유배를 다녀왔다. 남구만의 유배시에서는 유배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는 정서라 여겨지는 여러 요소, 즉 연군이나 충절, 자신이 유배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울분, 유배로 인한 좌절이나 유배지에서의 신세한탄 등 그 어느 것도 주된 정서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배로 인한 격리, 고립, 소외라는 현실적 단절에서 오는 위기의식보다는 단지 친근한 사람들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아쉬움과 애석함이 주조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구만이 유배를 사형에 버금가는 극형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저 한 순간의 격리로 인식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유배를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남구만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숙종의 입장에서조차 남구만을 유배 보내는 것이 정말로 그를 단죄하기 위한 형벌이었다기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배의 경우는 징계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세 번째 유배의 경우는 남인의 압력에 의한, 네 번째 유배의 경우는 노론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남구만의 유배시에서는 왜 유배시의 보편적인 특징이라 여겨지는 정서가 부각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약천 남구만, 유배, 유배시, 숙종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 I. 서론

유배문학은 하나의 문학 갈래로 분류되며 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관료문인들이 유배를 당했던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자신의 유배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남긴 문인들이 많았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藥泉 南九萬(1629-1711)은 효종·현종·숙종에 걸친 三朝의 대신으로, 숙종(재위 1674~1720) 때에 네 차례 유배를 다녀왔다. 숙종 때는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의 政爭이 치열했던 시기로 庚申換局(1680), 己巳換局(1689), 甲戌換局(1694) 등의 사건이 계속되며 수많은 관료들이 유배를 떠나야했다. 숙종 때에 유배를 간 관료문인 중에서 梅山 李夏鎭(1628-1682),<sup>1)</sup> 尤庵 宋時烈(1607-1689),<sup>2)</sup> 定齋 朴泰輔(1654-1689),<sup>3)</sup> 壺谷 南龍翼(1628-1692)<sup>4)</sup> 등의 유배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구만의 유배에 대한 내용은 그의 생애를 살펴본 글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며, 그의 유배시도 그의 시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였다.<sup>5)</sup> 하지만 남구만

1) 윤재환, 『조선 후기 유배 경험의 시적 형상화 - 매산 이하진의 『운양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pp.321-349.

2) 양순필, 『우암 송시열의 제주 유배시 소고』, 『백록어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2, pp.73-92.

3) 주영아, 『박태보 문학에 나타난 현실 대응 양상 - 충청도 유람시기와 평안도 유배시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학』 2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pp.69-100.

4) 안말숙, 『남용익의 유배시 고찰』, 『수련어문논집』 20, 1993, pp.93-115.

5) 성당제, 『약천 남구만 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양언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박영민, 『약천 남구만의 한시 연구』, 『한국인물사 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김성연, 『남구만의 시세

의 유배와 유배시에 대해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글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남구만의 유배와 유배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구만은 총 네 차례 유배를 다녀왔으며 각 시기마다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필자는 본고에서 남구만이 유배형을 받고 유배지로 가는 과정에서 지은 시와 사면을 받고 나서 그 감회를 읊은 시까지도 유배시에 포함시킨 바,<sup>6)</sup> 총 61수의 시를 유배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네 번의 유배를 염두에 두면 비교적 적은 양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유배시를 통해 남구만 시세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 II. 남구만의 네 차례 유배와 유배시

남구만은 23세(효종 2년, 1651)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28세(효종 7년, 1656)에 別試에 합격하여 假注書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로부터 大司諫 · 大司成 · 觀察使 · 刑曹判書 · 漢城府左尹 · 都承旨 · 大提學 · 兵曹判書 등 요직을 두루 거쳐 59세(숙종 13년, 1687)에 영의정에 올랐으며 79세(숙종 33년, 1707)에 奉朝賀에 제수되었다. 숙종 37년(1711년 3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경종 2년(1722)에 文忠의 시호를 받고 숙종 廟廷에 배향되었다. 그는 특히 숙종조 정계의 중심인물로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지만, 그

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등.

6) 허춘(『유배문학 연구의 과제』,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2012, p.8.)은 “유배문학은 ‘귀양지를 소재로 하거나 귀양지에서 지은 작품’을 일컫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배지에서 겪고 느낀 일 외에도 ‘유배지로 가고 해배되어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감정을 그린 작품’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히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는데,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한다.

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던 인물로 당쟁을 의식하거나 그것을 주도한 인물은 아니었다.

남구만은 숙종의 큰 신임과 많은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쟁이 치열하고 정국의 변화가 심했던 시기였던 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차례 유배를 가게 된다. 그 네 번의 유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	기간	종류	유배지	시	敍用
첫 번째 유배(51세)	1679.03.19. ~ 1679.10.03.	遠竄	巨濟島 → 南海	35수	1680.04.03 都承旨
두 번째 유배(60세)	1688.07.15. ~ 1688.11.09.	園籬安置	慶興府	15수	1689.01.16 判中樞府事
세 번째 유배(61세)	1689.04.18. ~ 1690.04.27.	中途付處	江陵	8수	1694.04.01 領議政
네 번째 유배(74세)	1702.05.13. ~ 1702.11.23. (-1704.05.03)	中途付處 → 放歸田里	牙山縣 → 結城 (→放送)	3수	1705.01.02 領中樞府事

약천 남구만의 『藥泉集』은 사후 12년이 지난 경종 3년(1723)에 34권 17책으로 출간되었다. 『약천집』 권1에 127수, 권2에 150수의 한시가 약천이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직후인 31세(1659년)부터 83세(1711년)로 운명하기 직전에 지은 <夜雨 絶筆>까지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다.<sup>7)</sup>

7) 『藥泉集』에 수록되어 있는 남구만의 시는 총 280수이다. 권1의 <城津感鄭東溟斗卿詩屏 并序>(1673년작)의 서문에 1671년에 지은 시가 삼입되어 있으며, 권2의 <贈朱生 并序>(1688년작)의 서문에 1674년에 지은 시가 삼입되어 있다. 그리고 권30에 1수(<答西溪丙子九月八日>)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외에 鄭文孚의 문집인 『農圃集』 권2에 <彰烈祠> 1수와 申翊全의 『東江遺集』 권19 附錄三에 <輓詞> 1수가 실려 있다. 따라서 현전하는 남구만의 시는 모두 282수이다.

## 1. 첫 번째 유배(51세, 1679년, 남해)와 유배시

남구만이 첫 번째 유배를 가게 된 것은 그의 나이 51세 때로 漢城府左尹으로 있던 숙종 5년(1679)의 일이다. 당시 대사헌 윤휴(1617-1680)가 重臣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영의정 허적(1610-1680)의 서자인 허견(?-1680)이 간악한 짓을 하고 횡포를 부리자, 남구만은 2월 10일 이들을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그러나 남구만은 도리어 그들에게 비방을 당한데다가, 숙종 역시 “남구만이 을묘년(1675, 숙종 원년) 간에 상소를 올려 위를 속이고, 말의 내용이 불미스러웠지만, 티를 씻고 收用한 것은 그가 마음의 혁신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한 일이었다. 左尹 벼슬이 제수되자 부모의 병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내 이런 소를 올린 것은 마음씀이 비뚤어졌으며 속마음이 이미 노출된 것이다.”라며 3월 19일 남구만을 거제도도 遠竄하라고 명한다.<sup>8)</sup>

처음에는 유배지가 거제도도 결정되어 4월 4일 거제도도 도착하였으나 송시열이 장기(長鬢)로부터 거제도도 옮겨 온 탓에 유배지가 다시 남해로 바뀌었다. 남해로 옮겨 유배생활을 하던 중 그 해 10월 3일 겨울에 우레가 치는 변고로 인해 숙종이 備忘記를 내려 특별히 방면하였다.

첫 번째 유배에 해당하는 유배시는 35수이다.<sup>9)</sup>

8) 『숙종실록』 <숙종 5년(1679) 3월 19일 甲寅> : 仍敎曰“南九萬曾於乙卯年間, 陳疏誣上, 語意不美, 而濼瑕收用, 欲其革心改圖. 及除左尹, 以親病下去, 而仍上此疏, 用意傾陷. 心膽已露, 左尹南九萬遠竄.” (이하 본고에서 언급되는 『숙종실록』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일자가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원문 제시를 생략함.) 여기서 숙종이 언급한 ‘을묘년의 상소’라 하는 것은 남구만이 숙종 1년(1675) 1월 6일 올린 사직 상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숙종실록』 <숙종 1년(1675) 1월 6일 乙丑 2번째 기사> 참조.

9) 본고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 DB’의 『약천집』(한국문집총간 131집-132집)을 텍스트로 삼았음.

유배	詩題	편수	詩作時期
첫 번째 유배	<化城路 自龜山赴巨濟配所. 水使趙令公師錫, 李尙州三錫來送路左. 己未(1679)>	1	유배길
	<白江津 沈進士權自浮山寺. 與二客乘小舟來別>	1	유배길
	<恩津店 三從弟重夏, 啓夏自尼山. 戚兄金禹鉉, 戚弟崔奎瑞自連山. 冒夜馳來同宿>	1	유배길
	<敬次叔父下示韻>	2	유배길
	<詠柚詩 二十首 并序>	20	유배지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3	유배지
	<余之南竄也. 崔校理汝和錫鼎 意余行路由鳥嶺 自榮川出迎咸昌, 而余由八良峴以來 故不相值. 到配後汝和寄咸昌二律次韻以答>	1	유배지
	<宿花房寺 贈文眼·應森二師>	1	유배지
	<登望雲山>	1	유배지
	<贈河生尙瑜 并序>	1	유배지
	<敕歸遊龜山僧舍 次叔父下示韻. 庚申(1680)>	2	사면 후
	소계	35	

처음 유배를 가게 된 남구만은 분명 여러 면에서 적잖은 충격과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네 차례의 유배 중 이 시기에 쓰여진 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차치해두더라도, 이때 지어진 유배시에는 다른 시기에 지어진 유배시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감정이 깃들여 있음을 보아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약천집』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유배시로, 기미년(1679, 숙종 5)에 지은 <化城路 - 自龜山赴巨濟配所 水使趙令公師錫 李尙州三錫來送路左. 己未>(화성의 길에서 - 구산에서 거제도의 配所로 갈 적에 水使 趙令公師錫과 李尙州三錫이 와서 길가에서 전송하였다. -)이다.

清曉發龜山	이른 새벽 구산을 출발하여
亭午踰雁嶺	정오에 雁嶺을 넘었네.
忽見長林下	문득 길게 뻗은 숲 아래를 보니
隱映鞍馬影	안장 엮은 말 그림자가 은은히 비추네.

殷勤二三子	세심한 두세 명
慰我行路永	내가 먼 길 떠남을 위로하네.
憐我就瘴羸	내가 습한 곳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閔我曠定省	내가 昏定晨省 빼먹게 됨을 가엾게 여기네.
倉卒無壺觴	급작스런 상황에다 壺觴도 없어
離憂徒炳炳	이별의 고통만 가득할 뿐이네.
年芳對野村	아름다운 때에 시골마을 마주하니
籬落明桃杏	울타리에는 복숭아 살구 꽃 활짝 피었네.
牛背彼何人	소 등에 탄 저 사람 누구인가.
益愧身落莽	이 몸 함정에 빠진 게 더욱 부끄럽네.
僕夫且告晚	마부가 갈 길 늦었다고 또 고해오니
嚴程惜俄頃	엄한 일정이라 잠시라도 아끼는구나.
從此隔山海	이제부터 산과 바다로 막힐 것이니
相憶遙延頸	서로 그리워하며 멀리 목을 빼게 되리. <sup>10)</sup>

남구만의 시 대부분은 이 시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詩題과 함께 그 시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병기하거나 아예 并序를 덧붙인 것이 많아 그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시는 구산에서 유배지인 거제도로 가는 길에 水使인 趙師錫과 李三錫이 남구만을 전송하기 위해 그리로 찾아오자 그들과 이별하며 쓴 시이다.

유배를 가게 된 것에 대한 처참함이나 억울함보다는 지인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이별의 고통이 더 크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남구만의 네 차례의 유배시 전체를 꿰뚫으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서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가게 된 유배에 대한 처참함이나 억울함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참함은 남구만 자신이 아니라 그를 전송하러 온 사람의

10) <化城路 - 自龜山赴巨濟配所 水使趙令公師錫 李尙州三錫來送路左. 己未(1679)>, 『藥泉集』 第二卷.

입을 통해 드러내고, 유배 가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은 시골 마을에 활짝 핀 복숭아꽃 살구꽃과 대비시키는 선에서 감춰두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라’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함정에 빠진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듯하다.

갑인년(1674 현종 15년)에 奸宄이 정권을 잡으니 鄉曲으로 물러가 있다가, 기미년(1679 숙종 5년)에 左尹으로 서울에 들어왔다. 이때 역적 許堅이 福昌君 李楨·福善君 李栲과 결탁하여 모반할 마음을 품어 中外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그 機微의 싹을 꺾는 자가 있지 않았는데, 金錫胄가 남구만에게 그 간사하고 기만된 일을 발설하도록 권하였더니 남구만이 두려워서 따르지 않자, 金錫胄가 이에 귀뜸하기를, ‘이것은 內旨이니 다른 우려는 없도록 보장하겠다.’ 하였다. 남구만이 이를 믿고 마침내 임금에게 상소하였다가 貴양 가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나, 그 일을 아는 자는 이미 그가 君子가 아니라고 의심하였다.<sup>11)</sup>

논론계에 의해 기록된 이 숙종실록의 기사에는 남구만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눈치 챌 수 있지만, 이 기사대로라면 자신이 金錫胄의 甘언이설에 넘어간 사실을 남구만은 함정에 빠졌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만은 비록 자신이 함정에 빠져 유배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나 자신을 비방한 정적들의 말만 믿고 자신을 유배 보낸 숙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11)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 3월 17일 丙午> ‘奉朝賀 南九萬 卒記’: 甲寅, 奸宄秉國, 退居鄉曲, 己未, 以左尹入京. 時逆堅結栲栳, 蓄異志, 中外洵懼, 無敢有折其機牙者, 金錫胄勸九萬, 發其姦騙事, 九萬懼不從, 錫胄乃憖之曰“此內旨也, 保無他憂.” 九萬信之, 遂抗疏被謫, 以此名益重, 而知其事者, 已疑其非君子.



남구만이 유배 가는 길목에서 직접 만나 작별하고자 했던 崔錫鼎이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자 나중에 시를 보내왔다. 남해에 도착한 후에야 그 시를 받은 남구만이 그 시에 차운하여 답한 다음 시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며 그저 하늘의 뜻에 순응할 뿐이라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이 역시 네 번의 유배를 관통하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我不尤人豈怨天	내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늘을 원망할까.
竄身炎海職當然	무더운 바닷가로 귀양 온 몸이 된 것도 당연하다네.
憂時有素終招過	평소 시국을 근심했던 것이 결국 화를 불렀고
學道無成且味權	도를 배웠으나 이루지 못한데다 權道에도 어두웠네.
未奉籃輿梅嶺道	가마를 받들어 梅嶺의 길로 가지 못해
空吟水調玉樓篇	헛되이 수조의 옥루편을 읊었다네.
秋霜滿鬢詩兼廢	가을 서리 살쨍에 가득한데다 詩마저 쓰지 못하니
深覺工夫負古賢	공부가 옛 현인을 저버린 것 깊이 깨닫는다네. <sup>12)</sup>

남구만이 비록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하늘의 뜻에 따를 뿐이라고 마음먹었을지라도 처음 유배를 가는 그 길에서 겪었던 고초는 쉽게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거제도로 가는 유배 길에 겪었던 고초는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1699년에 지은 시 <贈徐塾>의 小序에서 그 때 일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미년(1679, 숙종 5) 여름 내가 거제도로 유배 갈 적에 僉知 서숙이 통영의 군관으로 있으면서 나를 전송하여 유배 가는 곳까지 따라왔다. 이때 밤이

12) <余之南竄也 崔校理汝和錫鼎 意余行路由鳥嶺 自榮川出迎咸昌. 而余由八良峴以來 故不相值. 到配後汝和寄咸昌二律. 次韻以答>, 『藥泉集』第二卷.

깊어서 고개를 넘는데, 앞길이 캄캄하고 또 소낙비까지 내렸다. 말에서 내려 고개 위에서 잠시 쉬었는데, 해변의 하늘이 아득하여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으니, 그때의 상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비파담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서침지가 나를 방문해 왔으므로 지나간 일을 서글피 생각하여 절구 한 수를 지어 주는 바이다.<sup>13)</sup>

남해에서 남구만의 유배생활은 病苦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향리의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변을 유람하는 등 유배 신세가 된 여타 문인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詠柚詩 二十首>의 并序에서 남구만은 당시의 병고와 적적함을 시로 달랠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미년(1679, 숙종 5)에 나는 성상의 명령을 받들고 거제도로 유배 갔다가 남해로 옮겨 갔다. 가을이 깊어 밤이 길어지자 잠이 더욱 적어졌으며, 평소 기력이 허약한데 눈까지 어두워져서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전전반측하며 함께 말을 나눌 사람이 없기에 유자를 읊은 시를 지어 서 疊韻으로 20수를 이루었으니, 이것을 시라고 여겨서가 아니요, 스스로 적직한 마음을 달랠을 뿐이다.<sup>14)</sup>

그리고 이 <詠柚詩> 20수에는 남구만의 애민 의식이 담겨있는 시가 여럿 있는데, 이는 여타 문인들의 유배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13) <贈徐塾 并小序>, 『藥泉集』 권2: “歲己未夏 我竄巨濟 徐僉知塾以統營軍官 送我行到配所. 夜深踰嶺 前路昏黑 又遭急雨. 下馬少歇于嶺上 海天茫茫 不能辨色 其時景象 猶不可忘. 今者徐僉知來訪我於琵琶潭歸老之處 概念往事 贈以一絕.”

14) <詠柚詩 二十首 并序>, 『藥泉集』 第二卷: “歲己未 承恩謫配巨濟移南海. 及秋深夜長 眠睡益少而氣素羸弱 眼且昏翳 不能曉燈讀書. 輾轉枕席 無與晤語 因作詠柚詩 疊韻成二十首 非以爲詩 聊自遣意耳.”

남구만은 유배 기간 중 주변을 유람하기도 하였는데, 남해 望雲山에 올라 그 감회를 읊은 다음 시는 남구만의 유배시 중에서 ‘戀君’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몇 안 되는 시 중의 하나이다.

捫蘿攀石上崢嶸	취덩굴과 돌을 움켜잡으며 높은 산에 오른 것은
爲感茲山偶此名	이 산이 공교롭게도 이런 이름임에 감동해서라네.
莫是堯民懷帝意	요 임금의 백성이 임금을 그리워한 뜻이 아니라면
將非狄子戀親情	狄仁傑이 아버이를 사모한 정이 아니겠는가.
孤飛白遠迷鄉井	흰 구름 외로이 멀리 날아가니 鄉井이 희미하고
一朵紅遙隔禁城	붉은 구름 한 점 멀어지니 宮城과 막혀 있네.
更有滄溟浮點影	다시 큰 바다에 몇 점의 그림자 떠 있으니
隨風何日向西征	바람 따라 어느 날에야 서쪽으로 가게 되려나. <sup>15)</sup>

남구만이 험한 망운산에 오른 이유는 다름 아닌 ‘망운산’이란 이름 때문이었다. 그는 본래 狄仁傑이 흰 구름을 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고사를 가져와 그 그리움의 대상을 임금으로까지 확대시키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戀君’의 정서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망운’에 대한 남구만의 이러한 생각은 1685년 생질인 朴泰維가 高山道 찰방 시절 조성한 망운정에 대한 기문인 <望雲亭記>(『藥泉集』 권28)에 구체적으로 개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배사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정서이자 유배시의 대표적인 정서로 간주되는 ‘戀君’을 남구만 역시 이 시를 통해 읊고 있기에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남구만의 유배시 중에는 戀君의 내용을 담은 시가 별로 없는데다, 있어도 그것이 그리 애절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戀君’이 남구만 유배시의 주된 정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5) <登望雲山>, 『藥泉集』 第二卷.

이렇듯 남구만이 첫 번째 유배시기에 지은 유배시에는 유배로 인해 지인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안타까움, 유배 길과 유배지에서 겪게 된 고초, 유배지에서의 생활, 愛民, 戀君 등 여타 유배 문인들의 유배시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서가 두루 담겨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신이 유배형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원망 혹은 자신의 결백함 등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다.

## 2. 두 번째 유배(60세, 1688년, 경흥)와 유배시

1679년 10월 3일 첫 번째 유배에서 석방된 남구만은 그 이듬해인 숙종 6년(1680) 4월 3일 도승지에 제수되며 敍用된다. 이는 庚申換局으로 인해 남인이 대거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하게 된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해 8월 모친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숙종 8년(1682) 7월에 삼년상을 마쳐 복을 벗고 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며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된다. 숙종 10년(1684) 1월 12일에는 우의정으로, 숙종 11년(1685) 5월 18일에는 좌의정으로, 숙종 13년(1687) 7월 25에는 영의정으로 승진한다. 그리고 1684년과 1686년에는 청으로 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이렇듯 첫 번째 유배를 다녀 온 후 남구만은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해나간다.

남구만이 두 번째 유배를 가게 된 것은 그의 나이 60세 때인 숙종 14년(1688년) 7월의 일이다. 숙종의 張貴人에 대한 총애가 극에 달하고, 宗人 東平君 李杭이 惠民署提調로 임명되는 전례 없는 특별한 恩眷을 입게 되자 이조판서 南溪 朴世采가 이에 대해 7월 13일 劄子를 올리지만 숙종은 노하여 그를 물리친다. 이에 약천이 朴世采를 비호하자 숙종이 大怒하여 그를 유배시키도록 명한다. 7월 14일에는 罷黜한 남구만과 呂聖齊를 귀양 보내라 하였다가, 그 이튿날인 7월 15일에는 명을 고쳐 남구만은 慶興府

에, 여성제는 慶源府에 圍籬安置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실록보궐정오』에서는 “영의정 남구만과 우의정 여성제를 귀양 보낼 것을 명하였다가, 곧바로 북쪽 변방에 安置할 것을 명하였는데, 남구만에게 또 천극(楸棘)을 한 것은 사랑하는 종친 李杭의 일을 논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6)</sup> 천극은 ‘중죄인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유배된 죄인을 가둔 가옥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이 해 10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일어나자 玉堂에서 筍子를 올려 어진 재상이 견책당한 일을 아뢰며 석방을 청하였지만, 숙종은 “겨울철에 이런 놀라운 재앙이 있으니 조용히 그 허물을 생각해 보건대 진실로 나의 덕이 없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상세히 경계하고 가르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賢相이 죄 없이 견책을 당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며 불허하였다.<sup>17)</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남구만이 받은 두 번째의 유배형은 첫 번째 때보다 더 엄하고 무거운 유배형이었으며, 그만큼 남구만에 대한 숙종의 분노가 더 컸으며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유배를 명한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 9일 숙종은 남구만과 여성제의 석방을 명한다. 두 번째 유배에 해당하는 유배시는 15수이다.

16) 『숙종실록보궐정오』 <숙종 14년(1688) 7월 14일 甲申> : 命竄領議政南九萬, 右議政呂聖齊, 旋命安置北塞. 九萬又楸棘, 以論嬖宗杭事也.

17) 『숙종실록』 <숙종 14년 10월 9일 戊申> : 玉堂因雷變上筍, 陳戒, 深論理慾之分, 未及南九萬, 朴世采事曰“大臣以體國之誠, 陳先事之戒, 儒賢之前席奏筍, 直陳其聞見 則究其本心, 出於理乎, 慾乎?” 又曰“自殿下爲此過舉之後, 輿僿下賤, 莫不齋咨發慨, 俱以爲賢相, 無罪被譴, 儒賢陳忠被斥, 萬口同辭, 人心難誣, 和氣致祥, 乖氣致異, 昭昭降臨之天, 恐因殿下號令之失當, 而乖氣應之也.” 上留其筍于中, 答曰“閉藏之月, 有此可愕之災, 靜思厥咎, 亶由否德, 縷縷誠誨, 可不體念? 第賢相無罪被譴之說, 於予心, 終有所未解也.”

유배	詩題	편수	詩作時期
두 번째 유배	<謫慶興過新安>	1	유배길
	<過咸興贈父老>	1	유배길
	<涪溪分路 贈呂相國聖齊 并序>	1	유배길
	<涪溪朱生楹次余贈呂相國韻贈余 聊復次答>	1	유배지
	<贈朱生 并序>	1	유배지
	<次慶興李府使華鎮韻>	1	유배지
	<大王大妃殿輓詞 并序>	2	유배지
	<贈五生 并小序>	5	사면 후
	<五生皆送到鍾城 又作長律一首以謝之>	1	사면 후
	<咸興更次前示父老韻示按使 己巳(1680)>	1	사면 후
소계	15		

남구만의 두 번째 유배지인 경흥부는 그가 43세인 현종 12년(1671) 7월부터 46세인 현종 15년(1674) 7월까지 함경도 관찰사로 있었던 곳에 속해 있는 곳으로, 1673년에는 茂山府 사람들이 당시의 공적에 감사해하며 生祠堂을 세운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이 시기에 지은 시는 유배를 떠나며 지인과 나눈 이별의 정한보다는 유배지에서 만나 사람들과 나눈 시가 주를 이룬다.

두 번째 유배시기에 지은 시 중 『약천집』에 수록된 첫 번째 시는 유배지인 경흥으로 가는 도중 신안을 지나며 쓴 것이다.

謫路三千里	유배길 삼천리
行行盡幾時	가고 또 간들 어느 때나 다갈까.
嶺雲晴帶雨	고개의 구름은 맑은 날에도 비를 데려오고
山木臥生枝	산의 나무는 누워서 가지가 자라네.
餞暑衣裳薄	더운 계절은 지났는데 의상이 얇으니
驚秋鬢髮危	가을에 놀라鬢髮이 위태롭네.
雖多京闕戀	비록 대궐을 그리워하는 마음 간절하기는 해도
嚴命敢遲遲	엄한 명령을 어찌 감히 지체하라. <sup>18)</sup>

이 시에는 유배지로 가는 길의 멀고 험함에 대한 한탄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다. 60의 나이에 그 멀고 험한 길로 유배 가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 맞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임금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을 그리워하며 그 명을 지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첫 번째 유배길에서 지은 <化城路>에서는 마부가 늦었다고 갈 길을 재촉하는데, 이 시에서는 스스로 길을 재촉한다. 또한 첫 번째 유배 때에는 유배지인 남해의 망운산에 올라서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비추었는데, 두 번째 유배 때에는 유배 가는 길부터 바로 戀君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첫 번째 유배(1679년) 후 두 번째 유배(1688년)를 가기까지 대략 10년이란 세월동안 숙종에 대한 남구만의 충정이 더 깊어졌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숙종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노하며 남구만을 위리안치 시키라 명을 내렸으면서도 결국은 겨울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린다는 재앙을 구실로 4개월도 못돼 석방을 명하고, 그 이듬해 1월 바로 관중추부사로 敍用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남구만에 대한 숙종의 신임과 총애가 이전보다 훨씬 더 두터워졌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함흥을 지날 때에 지은 시인데, 이 시 밑에 당시의 관찰사 朴泰尙이 지은 <咸興鄉射堂揭詩板跋>이 附記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함흥의 父老들은 유배 가는 상국의 수레를 에워싸고 모여 구경하며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지방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따라가 북쪽 고개 아래까지 전송하니, 공이 마침내 감사의 표시로 시 한 수를 남겨 주었다.”<sup>19)</sup>고 한다.

18) <謫慶興過新安>, 『藥泉集』 第二卷.

19) 朴泰尙, <咸興鄉射堂揭詩板跋>, 『藥泉集』 第二卷: “咸之父老擁車聚觀 無不齋咨涕洟. 鄉紳學子追以送之北嶺之下. 公乃留贈一詩以謝焉”

遠承恩謹豆江瀨	承恩의 꾸짖음으로 두만강 가로 쫓겨 가는데
行到城川眼忽新	城川에 이르니 눈이 갑자기 새로워집니다.
十五年前觀察使	십오 년 전의 관찰사
三千里外放流人	삼천리 밖으로 유배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淮中默數同蘇子	淮수가에 왕래한 것 묵묵히 헤아려 보니 蘇軾과 같건만
穎上重臨異漢臣	穎川가에 거듭 임했으나 漢의 寇恂과는 다르군요.
還愧無言謝父老	父老에게 감사하다는 말 할 수 없어 도리어 부끄러우니
明時自作戴盆身	태평 시대에 스스로 동이를 이는 죄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sup>20)</sup>

이 시에 대해 박태상은 “내 삼가 살펴보니, 相國의 이번 귀양길은 백발에 먼 변방으로 쫓겨 가서 跋涉하여 무한한 고통을 겪었으나 마침내 精華가 드러나고 흉금이 평탄하여 일찍이 곤궁을 당하지 않은 자인 듯하며, 또 이 시편을 읽어 보니 忠厚하고 정성스런 뜻이 말 밖에 넘쳐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는 기운이 전혀 없었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은 어찌 수양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미칠 수 없는 점이다.”<sup>21)</sup>라고 평가하였는데, 이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는 길라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박태상의 이 말은 이 시 뿐만 아니라 남구만의 유배시 전반에 걸쳐 두루 적용되며 남구만 유배시의 특징으로 지목될 만하다.

이 두 번째 유배기에 지은 시들은 대부분 매우 일상적이고 평온한 편이다.<sup>22)</sup> 이러한은 특히 다음 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시는

20) <過咸興贈父老>, 『藥泉集』 第二卷.

21) 朴泰尙, <咸興鄕射堂揭詩板跋>, 『藥泉集』 第二卷: “余竊觀 相國此行 白首窮邊 跋涉間關 而乃精華映發 襟度夷然 若未始遭困厄者. 及觀是篇 忠厚懇款之意 溢於辭表 絕無侘傺抑鬱之氣. 凡若是者 豈非有所養而能然. 其真不可及歟.”

22) 박영민, 「약천 남구만의 한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p.20.



자신이 위리안치 된 곳으로 찾아온 朱生 楡의 시에 답한 시이다.

躑躅學子日來前	나풀나풀 학생들 날마다 앞으로 찾아와
相對還忘絕塞遷	서로 마주하니 오히려 변경 지대로 귀양 온 것 잊게 하누나.
挹斗揚箕元委命	北斗로 푸고箕星으로 까부르는 일 따윈 命에 맡기고
尋行數墨且隨緣	심항수묵 또한 인연을 따르세나.
生平素業止斯耳	평소의 생업 여기서 그칠 뿐이니
分外黃扉曾偶然	분수 밖의 黃扉는 일찍이 우연이었을 뿐이네.
臥聽伊吾聊自遣	누워서 글 읽는 소리 들으며 스스로를 달래니
怨尤終不及人天	원망과 허물은 결국 사람과 하늘까지는 미치지 않는 구나. <sup>23)</sup>

험한 유배 길에서 겪었던 고초는 모두 사라지고 유배지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悠悠自適하는 일상이 잘 담겨있는 시이다. 이는 남구만 자신이 15년 전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던 곳이었기에 사람도 경물도 풍속도 인심도 모두 친숙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며, 그로인해 골머리 아픈 정치판을 떠나 있는 지금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남구만이 두 번째 유배시기 중에 유배 중인 자신의 처지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한스러워했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大王大妃展(인조의 繼妃로 恣懿大妃인 莊烈王后)이 승하하셨을 때이다. 官府에 모여 곡할 수 없는 죄인의 처지였기에 자신의 현 상황과 유사했던 蘇軾이 그 당시에 지은 시에 차운하여 만시 두 수를 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였다.<sup>24)</sup>

첫 번째 유배와 세 번째 유배 때의 유배시는 유배형을 받아 유배를 떠나

23) <涪溪朱生楡次余贈呂相國韻贈余 聊復次答>, 『藥泉集』 第二卷.

24) <大王大妃殿輓詞 并序>, 『藥泉集』 第二卷.

는 길에 지인들과 이별의 안타까움을 나누는 시가 주를 이루는데 반해, 이 두 번째 유배 때는 석방을 받은 후 그곳의 지인들과 나누는 시가 주를 이룬다. 석방된 후 위리안치 된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던 다섯 학생 金生起泓·蔡生宇柱·朱生楡·穩崔生輔國·黃童子廷吉에게 작별에 임하여 각각 절구 한 수 씩을 지어준 <贈五生 并小序>이 대표적이다.<sup>25)</sup> 이것을 두 번째 유배시기 유배시의 특징 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겠다.

이 두 번째 유배의 경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죄인을 유배시킬 경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죄인의 거주지나 임지였던 곳은 제외시키는 항목도 있다고 한다.<sup>26)</sup> 그런데 남구만은 무슨 이유로 자신이 만 3년 동안 관찰사로 부임해 있었던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위리안치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중죄인을 가두어 바깥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키는 형벌인데, 그중에서도 加棘安置는 특히 王族 또는 重臣 등 주로 정치범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형벌로서 그 지역 府使나 牧使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개인적인 활동과 주민들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한다.<sup>27)</sup> 남구만이 받은 두 번째 유배형은 위리안치 중에서도 천극(楛棘), 즉 加棘安置인데 그의 유배시를 통해 보면 그가 바깥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남구만의 이 유배형은 형벌보다는 징계 처분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25) <贈五生 并小序>, 『藥泉集』 第二卷. : “余戊辰八月八日到慶興 十二月三日放還.

其間相守圍棘中 終始者有五人 慶源金生起泓 蔡生宇柱 鍾城朱生楡 穩城崔生輔國 慶源黃童子廷吉也. 臨別各贈一絕句 記其居止 以寓他日相念之意云爾.”

26) 김의환, 「조선 중기의 流配刑과 流配 生活」,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2011, p.43.

27)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p.147.

### 3. 세 번째 유배(61세, 1689년, 강릉)와 유배시

남구만은 두 번째 유배에서 해배 된 후 두 달여 만인 숙종 15년(1689) 1월 16일 판중추부사에 제수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삼는 과정에서 옹호하는 남인과 반대하는 서인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문제로 인해 己巳換局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서인이 조정에서 물러나고 다시 남인이 들어오며 인현왕후는 5월 2일 폐위된다. 남구만은 비록 온건한 소론의 신분으로 판중추부사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일을 주도한 소론과 함께 한 책임을 지고 파직 당한다. 숙종은 본래 남구만을 削奪官職하고 門外出送하려 했으나 4월 18일 兩司에서 남구만을 中途付處할 것을 청하여 남구만은 결국 강릉에 부처된다. 그리고 이 유배형은 1690년 4월 27일이 되어서야 풀린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남구만이 당한 네 차례의 유배 중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사가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이며 그것이 갑술환국(1694)이 벌어지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소론의 영수였던 남구만의 이 유배형은 오히려 가벼운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구만은 유배 된지 1년 만인 숙종 16년(1690) 4월 27일 가뭄으로 인해 죄수를 疏決할 때에 방면되는데, 여기서도 남구만에 대한 숙종의 총애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敍用은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득세하게 된 후인 숙종 20년(1694) 4월 1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세 번째 유배에 해당하는 유배시는 8수이다.

유배	詩題	편수	詩作時期
세 번째 유배	<四月二十日 承恩謫江陵 李白川 景略 崔安東 錫鼎 朴錫泰 輔賦詩送行 次諸人韻> (附記 元韻6수: 景略 1수, 崔錫鼎 3수, 朴錫泰 2수)	4	유배길
	<路聞李相公季周葬>	1	유배길
	<權姪穰自旌善委訪 歸又寄書 聊答一絕>	1	유배지

<放還靑潭偶吟 庚午(1690)>	2	사면 후
소개	8	

남구만의 이 세 번째 유배는 다른 때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며 서인은 큰 타격을 받아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남구만은 유배지인 강릉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질인 박태보의 부음을 전해 듣고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고생하기도 하였다.<sup>28)</sup> 게다가 동해의 습한 기후로 인한 질병 문제, 당해의 큰 흉년으로 인한 의식 문제 등 여러 상황이 겹친 데 덮친 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유배기는 남구만에게 있어 정치적·정신적·물질적·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유배기였음은 분명하다.<sup>29)</sup> 하지만 이러한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유배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배시는 비록 8수밖에 안 되지만, 선행연구자들은 남구만의 강릉 유배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언석은 이 세 번째 유배 이후 남구만이 “서민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순수한 감성의 노래를 재인식하면서 기존의 모방과 답습, 그리고 위작까지 일삼던 사대부들의 시풍보다는 일반백성들의 진솔한 감성표출의 가치와 효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새로운 조선풍의 민중문화를 창작하게 되었다.”<sup>30)</sup>며 큰 의의를 부여한 바 있다. 또한 적잖은 연구자들은

28)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박태보는 이를 강력히 간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 심한 고문을 받고 귀양 가던 중 노랑진에서 죽는다.

2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약천집』 제32권 <書> ‘答崔汝和己巳七月七日’과 『약천연보』 제5권 ‘61세 기사년(1689, 숙종15)’ 참조

30) 양언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p.197.

남구만의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이 세 번째 유배 당시 창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1)</sup>

두 번째 유배의 유배시가 유배지인 경흥부에서 그곳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시가 중심이 되는 반면, 세 번째 유배의 유배시는 유배를 떠나면서 지인들과 나누는 시가 중심이 된다. 특히 강릉으로 유배 갈 적에 자신을 전송하는 지인들과 나누는 차운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약천집』에는 당시에 남구만이 지은 차운시 4수와 더불어 元韻 6수(景略 1수, 崔錫鼎 3수, 朴泰輔 2수)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東郊催馬日斜時	동쪽 교외에서 해질 무렵 말을 재촉하니
去國孤臣鬢髮危	울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 살쩍과 백발 세는구나.
豈有文章驅鰲遠	악어를 멀리 쫓아낼 만한 문장 어찌 있겠나.
只堪春夢遇婆知	다만 일장춘몽임을 알게 하는 노파를 만났을 뿐.
身臨僊海猶非惡	몸이 신선 바다로 가는 것 오히려 싫지 않고
命信旻天迥不疑	운명을 하늘에 맡기니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네.
許貸殘生恩亦大	남은 목숨 용서해주신 은혜 또한 크니
親朋何用浪垂漣	친한 벗들이여 부질없이 눈물 흘린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sup>32)</sup>

최석정의 시에 차운한 남구만의 이 시에는 지인들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여느 때처럼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이는 남구만의 유배시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정서임은 앞에서도 밝힌 바 있다.

31) 장정룡, 『東海市 望祥洞 유적과 藥泉 南九萬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 강원도민속학회, 1995, p.93; 양언석, 앞의 논문, p.178; 이승철, 『동해 약천마을과 약천 남구만의 <시조> 엮보기』, 『강원민속학』 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pp.49-74 등.

32) <四月二十日 承恩謫江陵. 李白川景略 崔安東錫鼎 朴甥泰輔賦詩送行. 次諸人韻> 중 제1수, 『藥泉集』 第二卷.

유배문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戀君’이나 ‘忠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배자가 비록 자신은 배척되었지만 자기야말로 군왕의 충직한 사람이며 자기를 배척한 반대자들이야말로 불충의 예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인식하기에 연군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3)</sup> 또한 상실감·단절감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유배문학은 그 표출된 양상이 대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는 憂患意識이나 忠節意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sup>34)</sup> 하지만 남구만의 유배시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남구만 자신이 연군이나 충정을 애절하게 읊은 시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남구만이 본래 그러한 시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편집자가 『약천집』을 편집하며 그러한 시들을 산삭해 버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남구만이 유배시기에 그런 애절한 연군시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한다. 그런 연군시가 있었다면 편집자가 굳이 그것을 모두 산삭해 버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천집』에 수록된 시들 중 남구만의 충정을 읊은 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남구만 자신의 시보다는 오히려 함께 병기된 지인들의 시를 통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일례로 남구만의 시와 함께 병기된 경략·최석정·박태보의 시 6수에서 두루 남구만의 충정이 묘사되고 있다. 그 중 박태보의 시 한 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양순필,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고」, 『한남어문학』 13,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7, p.21.

34) 윤재환, 앞의 논문, p.325.

衰年頻作遠遷人	노쇠한 나이에 자주 멀리 유배 가시니
今歲已兼去歲辰	금년도 벌써 지난해 귀양 가셨던 그때가 되었네요.
萬里漂流同汎梗	만 리를 표류하는 나무인형 같고
一生忠愛祗危身	일생동안 충성하였으나 몸만 위태로울 뿐이시네요.
心懸日下重宸隔	마음은 군주에 매여 있으나 구중궁궐과 막혀 있고
迹寄天涯異俗親	하늘 끝에 거주하시니 다른 풍속과 친하시네요.
剛喜謫居仍勝地	귀양 가시는 곳이 참으로 명승지여서 마음 기쁘니
不妨蘭佩褫朝巾	난초로 官服과 바꾸는 것 해롭지 않을 것이예요. <sup>35)</sup>

박태보는 자형인 朴世堂의 아들로 남구만의 조카이기도 하다. 이 시에는 유배를 떠나는 남구만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다. 그와 더불어 남구만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유배를 가야하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유배 시기 남구만의 시와 함께 병기된 원운시에도 남구만의 충정을 읊은 시가 여럿 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시에 이미 충분히 남구만의 충정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남구만 자신이 굳이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남구만의 유배시에는 왜 연군과 충정을 읊은 시가 별로 없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명이 될 수도 있을 듯싶다.

남구만의 한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이한 사건을 소재로 하여 매우 평이한 시어로 구성되었다’는<sup>36)</sup>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로 세 번째 유배에서 풀려난 후 비파담으로 돌아가 읊은 시 두 수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제2수는 다음과 같다.

35) 「四月二十日 承恩謫江陵 李白川景略 崔安東錫鼎 朴甥泰輔賦詩送行 次諸人韻 朴泰輔」에 첨부된 朴泰輔의 元韻 시 2수 중 제1수, 『藥泉集』 第二卷.

36) 박영민, 「약천 남구만의 한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p.24.

可惜階前海石榴	애석하여라 계단 앞 해석류
草間埋沒似羈囚	풀 사이에 파묻혀 마치 귀양 온 나그네 같구나.
尙看根底藏生意	아직 뿌리 밑에 살 뜻 간직하여
雨後新枝一尺抽	비 온 뒤 새로 난 가지가 한 자나 자랐구나. <sup>37)</sup>

이 시에는 그 어떤 典故나 어려운 단어는 쓰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소재와 평이한 시어만으로 해배된 후의 남구만의 감회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시에서 해석류는 남구만 자신을, 계단 앞은 政局을, 풀은 남인을, 비는 정치적 시련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정국은 남인이 차지해 자신은 풀 사이에 파묻혀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귀양 온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아직은 다시 일어서 시국을 바로잡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고 싶은 뜻은 간직하고 있으니, 비 온 뒤 새로 난 가지가 한 자나 자라난 것처럼 자신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그럴 시간과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것은 남구만이 세 번째 유배 당시 최석정의 서신에 답한 글에서 “나는 더 남은 희망이 없으니, 조만간 홀연히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단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여길 것이나, 옛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가탄스러울 뿐이오.”<sup>38)</sup>라며 침울해했던 모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남구만은 세 번째 유배에서 1년여 만인 1690년 4월 27일 해배되지만,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의 중심이 된 이후인 1694년 4월 1일에야 영의정으로 敍用된다.

37) <放還琵琶潭偶吟 庚午(1690)> 중 제2수, 『藥泉集』 第二卷.

38) 『약천집』 제32권 <書> ‘答崔汝和己巳七月七日’: “僕則更無餘望 朝夕溘然 當如就甘寢. 而前人之言 多有不足信者 是爲可歎耳.”



#### 4. 네 번째 유배(74세, 1702년, 아산)와 유배시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들어서게 되고 6월 1일 인현 왕후가 복위된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희빈 장씨와 희빈의 오빠인 張希載가 인현왕후를 해치려하다 그 모의가 발각되어 장희재가 사형을 받게 될 처지가 된다. 그러나 남구만은 장희재가 죽게 되면 희빈 장씨가 위태로워져 결국 세자까지 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장희재를 비호하였으며 그 덕분에 장희재는 사형을 면하고 유배를 가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구만은 지속적으로 노론의 공격을 받으며 사직과 待命, 영의정 제수가 반복되다가 결국 68세(1696) 이후 고향 結城으로 내려가 다시는 재상을 맡지 않았다. 그 해(1696년) 10월 28일 숙종이 結城에 사람을 보내 남구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御製 七言律詩를 하사하였는데,<sup>39)</sup> 이 시를 통해 남구만에 대한 숙종의 신뢰와 총애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다.

남구만은 숙종 24년(1698) 정월 초하루에 耆老所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듭 致仕를 청하였으나 숙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숙종 27년(1701) 8월 14일 인현왕후가 승하하고, 숙종은 10월 8일 승정원에 ‘희빈 장씨를 내전을 질투하여 모해하려 한 죄로 자진하게 하라’고 하교한다. 이 과정에서 세자의 생모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은 종사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남구만과 柳尙運은 노론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그 이듬해에 남구만은 5월 13일 牙山으로, 유상운은 稷山으로 중도부처 보내진다. 1702년 11월 23일 숙종은 남구만과 유상운에게 放歸田里를 명하는데, 이것은 10월 13일 숙종이 새로운 중전 仁元王后를 맞이하는 大婚을 거행하고 이어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남구만과 유상운의 감형도 이 덕을 본 것이다. 남구만의 네 번째 유배의 기간은 6개월 남짓이지만, 완전히 사면 받은 것은 그로부터

39) <伏次御賜詩韻 并小序>, 『藥泉集』 第二卷.

약 1년 반이 더 흐른 후인 1704년 5월 3일이 되어서이다.

네 번째 유배시기에 해당하는 시는 3수이다.

유배	詩題	편수	詩作時期
네 번째 유배	<記夢 壬午(1702)>	1	유배지
	<贈碧虛上人 并小序>	1	유배지
	<放還結城 疊前韻贈碧虛 癸未(1703)>	1	사면 후
	소계	3	

<記夢 壬午(1702)>는 남구만이 유상운과 나주의 회진에 모여 고기를 회쳐 먹는 꿈을 꾸고 난 후 그 내용을 시로 읊은 것이며,<sup>40)</sup> 나머지 두 수는 벽허스님에게 준 시이다. 벽허스님은 남구만이 세 번째 유배 갔던 강릉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네 번째 유배 때는 아산으로 방문해 와 남구만이 그 의리에 감동한 바 있다. 방귀전리로 감형 받아 고향인 결성으로 돌아온 후 벽허스님에게 준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苦海茫茫不見瀕	苦海는 아득하여 끝을 볼 수 없으니
誰將覺筏濟迷津	누가 각별을 가져다가 미진을 건너게 해줄까요.
吾今解脫非緣法	내 지금 해탈함은 佛法 때문이 아니며
自在無爲是散人	자재하고 무위함은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sup>41)</sup>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앞선 세 번의 유배시기에 지은 시에도 줄곧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담은 시가 있어왔는데,

40) <記夢 壬午(1702)>, 『藥泉集』 第二卷. : 在牙山謫所 夢與柳相國會羅州會津設  
膾 覺而有作. 時相國謫稷山.

41) <放還結城 疊前韻贈碧虛. 癸未(1703)>, 『藥泉集』 第二卷.

이 시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구속과 방해를 받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의 경지에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교와 74세라는 고령의 나이도 그가 더 이상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갖게 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보다도 자신은 봉당이니 정쟁이니 하는 것보다도 대의를 우선시하며 마땅한 도리에 따라 행동한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며 재차 세상일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으므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구애받지 말자는 깨달음의 표출이기도 할 것이다.

남구만은 숙종 28년(1702) 11월 23일 방귀전리로 감형 받았다가 숙종 30년(1704) 5월 3일에는 완전히 석방된다. 숙종 31년(1705년) 1월 2일 숙종이 거듭 남구만을 敍用할 것을 명하여 남구만은 영중추부사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남구만은 숙종 33년(1707) 奉朝賀에 제수되며, 숙종 37년(1711) 3월 17일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 IV. 결론

지금까지 남구만의 네 번의 유배와 당시에 지은 유배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구만의 유배와 남구만 유배시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며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유배형 자체가 원래 종신형이기 때문에 한번 유배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라의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국왕이 사면령을 내려 유배 인사들이 유배지에서 석방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정치적 이해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政爭에 연루되어 유배된 많은 양반관료들은 몇 년 안에 사면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sup>42)</sup> 남구만의 경우 첫 번째

유배 때에는 겨울에 우레가 치는 변고로 숙종이 특별히 방면해 주었고, 두 번째 유배 때에도 겨울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남구만을 석방해주는 구실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 유배는 기사환국으로 인해 유배를 떠나게 되지만,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가뭄을 민망히 여겨 죄수를 疏決할 때에 유배당한지 불과 1년 만에 방면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배 때에는 大婚에 의한 사면령에 의해 방귀 전리로 감형 받게 된다. 이렇듯 남구만은 총 4번의 유배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 유배 기간은 모두 짧은 편이었으며 해배된 후에도 어렵지 않게 敍用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구만에 대한 숙종의 신임과 총애가 그만큼 대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구만이 겪었던 유배는 그에게 그리 가혹한 편은 아니었으며, 그의 정치 경력과 인생에 큰 흠이 되지도 않았으며, 그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타격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현전하는 그의 유배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남구만의 유배시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시로써 유배의 행로와 만난 사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詩題 아래에 꼼꼼한 해설과 인명까지 붙여 놓아 마치 한 편의 기행문을 대하는 듯한 감을 준다’<sup>43)</sup>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식의 詩題가 그의 유배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유배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남구만의 유배시에서는 유배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는 정서라 여겨지는 여러 요소, 즉 연군이나 충절, 자신이 유배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울분, 유배로 인한 좌절이나 유배지에서의 신세한탄 등 그 어느 것도

42)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p.211.

43) 김성언, 『남구만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p.260.

주된 정서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배로 인한 격리, 고립, 소외라는 현실적 단절에서 오는 위기의식보다는 단지 친근한 사람들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아쉬움과 애석함이 主調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구만이 유배를 사형에 버금가는 극형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저 한 순간의 격리로 인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케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유배를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도 유배시의 보편적 정서라 여겨지는 것들이 그의 유배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숙종의 입장에서도 남구만을 유배 보내는 것이 정말로 그를 단죄하기 위한 형벌이었다기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배의 경우는 잠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라는 정도의 징계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세 번째 유배의 경우는 남인의 압력에 의한, 네 번째 유배의 경우는 노론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이 남구만의 유배시가 유배시의 보편적인 속성이 부각되는 여타 문인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숙종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약천연보』.

『약천집』.

김성언, 「남구만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p.260.

김의환, 「조선 중기의 流配刑과 流配 生活」,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2011, p.43.

박영민, 「약천 남구만의 한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pp.1-30.

- 성당제, 『약천 남구만 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pp.137-169.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pp.199-222.
- 양순필,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 『한남어문학』 13,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7, pp.17-33.
- 양언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pp.171-206.
- 윤재환, 『조선 후기 유배 경험의 시적 형상화』,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pp.321-349.
- 허 춘, 『유배문학 연구의 과제』, 『영주어문』 23, 영주어문학회』 2012, pp.5-19.

**Abstract**

## A Study on Yakcheon Nam Gu-man's Poems of Exile

Lee, Hwa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Yakcheon Nam Gu-man in exile and his poems of exile. In the reign of Sukjong, Nam Gu-man was exiled total four times. In Nam Gu-man's poems of exile, any of the elements considered to be sentiments universally appearing in exile literature, for example, affection and loyalty towards the king, feelings of depression and resentment for being exiled, frustration in exile, or lamentation in exile, is not distinctly found. In addition, although an attitude of life accepting one's exile as the disposition of Providence is found universally in poetry of exile, it is also hardly shown in his poems. In Sukjong's position, too, exiling Nam Gu-man was not really a penalty to punish him severely. The first and second exiling was done as disciplinary action. The third exile was an inevitable action taken for Namin's pressure, and the fourth was for Noron's. All these things can explain why Nam Gu-man's poems of exile present different aspects from those found in other literary persons' poems of exile which distinctively reveal universal characteristics.

Key Word : Yakcheon Nam Gu-man, exile, poems of exile, Sukjong

이황진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전자우편 : ongogs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2월 9일 투고되어  
2017년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